

2026·4·16
—5·23

모두미술공간 Modu Art Space
서울스퀘어 별관 5층.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5th Floor, Seoul Square,
416 Hangang-daero,
Jung-gu, Seoul

관계의 기술: 기꺼이기어이기대어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경사로는 늘어나고 문턱은 낮아지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게 느껴집니다. 예상치 못한 기다림을 마주할 때마다 애써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혼자서 잘 살아남는 법을 고민하는 사이, 기대어 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조금씩 무디어져 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상태를 성숙함의 척도로 삼는 능력주의 질서에 익숙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몸짓은 연약함으로만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살피고 돌보는 행위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관계 속에서 상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부를 묻고 손을 건네며, 느리게 걸어 보폭을 맞추는 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배려의 방식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살피며 속도를 조율하는 '관계의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기 다른 존재들이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궁리하는 일입니다.

이번 전시는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작업의 과정에 주목합니다. 전시의 참여자들은 울퉁불퉁한 관계의 역동성을 그대로 전시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들에게 창작이란 고립된 성공이 아니라, 서로 긍정하고 지지하며 일구어낸 협력의 기록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는 극복해야 할 개인의 과제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게 하고 맞물리게 하는 공동체의 토대가 됩니다.

때로 음이 어긋나고 박자를 놓치기도 하지만 노래는 계속 이어집니다. 생경한 화음 속에서, 불안 속에서, 목소리가 부딪히고 섞이는 시끄러운 소란 속에서, 우리는 악보와는 다른 노래를 이어갑니다. 기꺼이 손을 내밀고, 기어이 곁에 남아, 서로 기대어 서서. 친구들의 작은 다정 덕분에.

전시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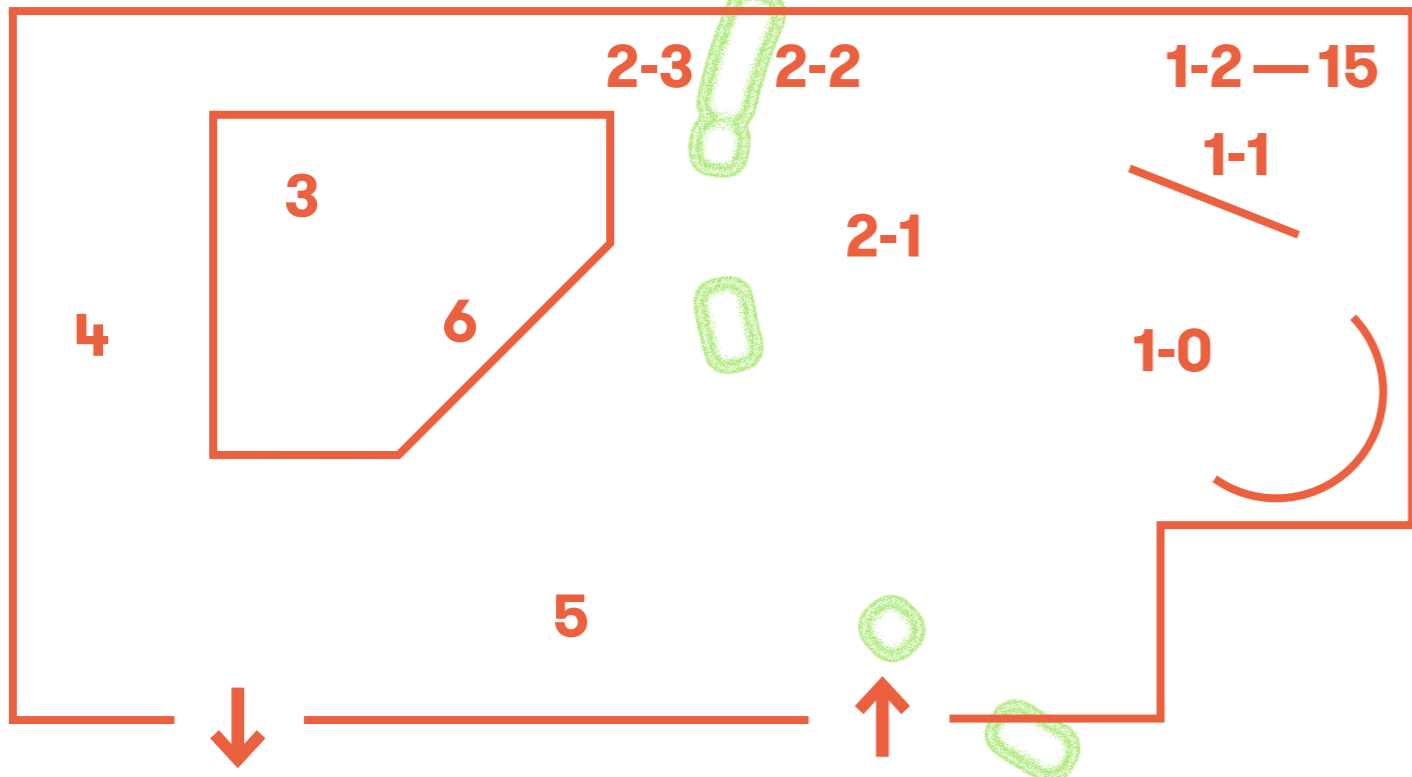
Curatorial Statement

The ramp extends, and the threshold lowers, yet the distance between our hearts still feels distant. Each time we encounter an unexpected disruption in pace, we instinctively turn away. As we spend more time thinking about how to live on our own, our questions about how to lean on others slowly fade and lose their urgency.

We are accustomed to a meritocratic order in which being responsible for oneself is taken as the measure of maturity. Any gesture of leaning on someone else has often been seen as a sign of weakness. Yet looking after and caring for others is not a one-sided act; it takes place mutually within relationships. *Exchanging greetings, offering a hand, and walking slowly in step with one another* are all part of this process. We need to move beyond simply learning to be considerate and instead cultivate the art of relationship, the ability to adjust our pace while looking out for each other. This, too, is a way of reflecting on how different beings live together while preserving their own distinctiveness.

This exhibition places its emphasis on the process of creation rather than on any completed result. The participants bring the dynamics of their turbulent relationships into space. For them, creation is not an individual achievement but a record of collaboration built through mutual affirmation and support. The creative process, where differences collide and intermingle, becomes a form of care in itself. And in this process, disability is not an individual narrative to be overcome, but a communal power that brings people together.

We may fall out of step or miss a beat, yet the song continues. Within the tangled harmony, amid anxiety and the noisy confusion of voices clashing and mingling, we end up singing a song different from the one written in the score. Reaching out our hands willingly, insisting on staying by one another's side, leaning on each other, *with a little help from friends.*



이정현

- 1-0 그림 악보 <애기동백꽃의 노래>를 모티브로 구성된 가구와 오브제 2026, 나무, 점토, 혼합매체, 188 × 120 × 45 cm. 제작: 마음스튜디오.
- 1-1 — 15 <그림악보> 시리즈 2022-2026.

라움콘

- 2-1 <함께 조각> 2026, 광목천에 실, 가변 크기.
- 2-2 <함께 조각> 2026,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18.9 × 84.1 cm, 3점.
- 2-3 <함께 조각> 2026, 싱글채널 비디오, 14분 3초.

Lee Jeonghyeon

- 1-0 Furniture and objects inspired by the Pictorial Scores Song of the Little Camellia 2026, wood, clay, mixed media, 188 × 120 × 45 cm. Production: Maum Studio.
- 1-1 — 15 Pictorial Scores series 2022-2026.

laumkon

- 2-1 Interdependent Sculpture 2026, Thread on cotton, variable installation.
- 2-2 Interdependent Sculpture 2026, Archival pigment print, 118.9 × 84.1 cm, 3 parts.
- 2-3 Interdependent Sculpture 2026, Single-channel video, 14 min 3 sec.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센터

- 3 <우리가 쌓아온 이야기> 2022-2026, 혼합재료, 가변 크기.

김진우

- 4-1 <진우와 함께하는 기차여행 _롤링페이퍼기> 2024-2025, 혼합매체, 44 × 60 × 16 cm.
- 4-2 <진우의 여행노트> 2019-2026, 아카이브 노트, 18.2 × 25.7 cm.
- 4-3 <진우와 함께하는 기차여행> 2026, 싱글채널 비디오, 7분 23초.

선사랑드로잉회

- 5-1 <우리 몸 크로키 - 공간 그림 퍼포먼스> 2026, 캔버스 천에 아크릴, 가변 크기.
- 5-2 <우리 몸 크로키 - 공간 그림 퍼포먼스> 2026, 싱글채널 비디오, 8분 39초.

등지

- 6 <등지의 풍경> 2026, 상자, 실, 종이, 씨앗, 차망, 철사, 밀랍점토, 스펀지, 주워 온 자연물, 스피커, 가변 크기.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 3 *The story we built* 2022-2026,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

Kim Jinoo

- 4-1 *Train travel with Jinoo _Rolling Paper Machine* 2024-2025, Mixed media, 44 × 60 × 16 cm.
- 4-2 *Jinoo's Travel Note* 2019-2026, Archival notebooks, 18.2 × 25.7 cm.
- 4-3 *Train travel with Jinoo* 2026, Single-channel video, 7 min 23 sec.

Sunsarang Drawing Group

- 5-1 *Body Croquis: A Spatial Drawing Performance* 2026, Acrylic on canvas, variable installation.
- 5-2 *Body Croquis: A Spatial Drawing Performance* 2026, Single-channel video, 8 min 39 sec.

Dungji

- 6 *The Dungji Scenery* 2026, Boxes, threads, paper, seeds, tea strainer, wire, beeswax clay, sponge, found natural objects, speakers, variable installation.

작가 및 작품 소개 Artists and Works

KR	이정현	8
	라움콘	12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실험터	16
	김진우	18
	선사랑드로잉회	20
	둥지	22
EN	Lee Jeonghyeon	24
	laumkon	26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30
	Kim Jinoo	32
	Sunsarang Drawing Group	34
	Dungji	36

1-1 숲속은 즐거워(이정현 자작곡)

2024, 수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59 × 92 cm.

1-2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D메이저 BWV 1012: 쿠랑트

2025, 수채화지에 마카펜 및 네임펜, 72 × 92 cm.

1-3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D메이저 BWV 1012: 프렐류드

2025, 수채화지에 마카펜 및 네임펜, 92 × 72 cm.

1-4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F메이저, K.138:2악장 안단테, 3악장 프레스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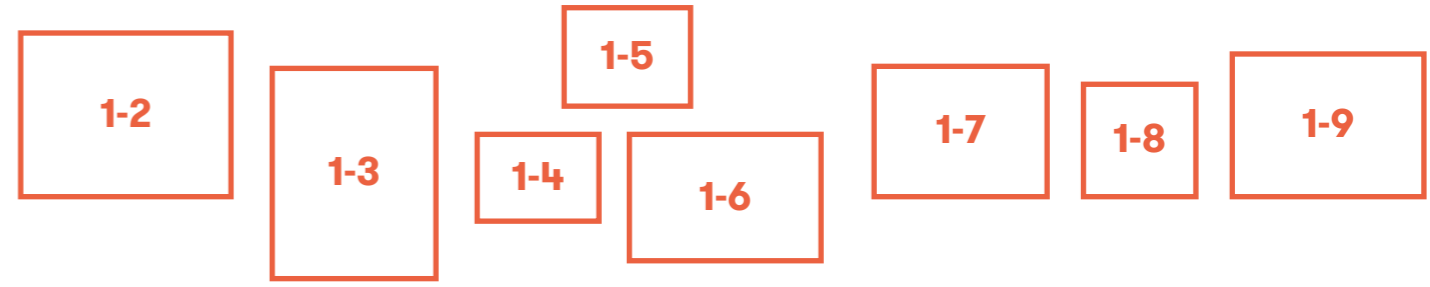
2022, 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39 × 54 cm.

1-5 차이콥스키 페초 카프리치오소 작품번호 62

2022, 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유성매직, 44 × 56 cm.

1-6 골터만 첼로 협주곡 제1번 A마이너

2024, 수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56 × 84 cm.



1-7 하이든 교향곡 45번 F샵마이너 “고별”: 1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2025, 수채화지에 마카펜, 57.5 × 76 cm.

1-8 하이든 교향곡 45번 F샵마이너 “고별”: 2악장 아다지오

2025, 한지에 마카펜, 50 × 50 cm.

한지 제작: 국가무형유산 한지장 안치용.

1-9 하이든 교향곡 45번 F샵마이너 “고별”: 3악장 미뉴에트

2025, 한지에 마카펜, 네임펜, 63 × 82 cm.

한지 제작: 국가무형유산 한지장 안치용.

소리를 색으로 인식하는 색청 공감각자이자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첼리스트다. 어린 시절부터 떠오르는 색과 점으로 선율을 옮겨 그린 ‘그림 악보’를 창작해 왔으며, 한 옥타브의 12음을 고유한 색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했다. 그의 그림 악보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모티브가 되어 영화 소품으로도 활용된 바 있다.

**1-10 하이든 교향곡 45번 F샵마이너 “고별”:
4악장 피날레**

2026, 수채화지에 마카펜, 38.5 × 57.5 cm.

1-11 쇼스타코비치 첼로 소나타 D마이너, 2악장

2023, 수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51 × 69 cm.

**1-12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C메이저,
K.467**

2024, 수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58 × 91 cm.

1-13 프랑크 첼로 소나타 A메이저, 2악장

2023, 수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유성매직, 52.5 × 72 cm.

1-14 프랑크 첼로 소나타 A메이저, 4악장

2023, 수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55 × 72 cm.

1-15 애기동백꽃의 노래

2023, 수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72 × 92 cm.

1-10

1-11

1-13

1-15

1-12

1-14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린 정현과 함께 숲을 찾아다니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자극에서 벗어난 자연의 경험은 내면의 감각을 가다듬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현의 자작곡 <숲속은 즐거워>에는 어린 기억 속의 순수한 즐거움과 평온이 가득합니다.

음악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시작한 고유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리듬과 화음에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정현은 시각과 청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감각을 경험했고, 이런 감각적 전환은 이후 ‘그림 악보’ 작업을 이어가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찍힌 색색의 점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 옥타브와 12음계의 질서가 자리합니다. 시각과 청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각 체계 속에서 각각의 점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노래합니다. 그림 악보는 작가만의 고유한 암호이자 자율적인 언어이며, 세계와 관계 맺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줍니다.



2-1 함께 조각

2026, 광목천에 실, 가변 크기.
모두미술공간 제작지원.

2-2 함께 조각

2026,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18.9 × 84.1cm, 3점.
모두미술공간 제작지원.

2-3 함께 조각

2026, 싱글채널 비디오, 14분 3초.
퍼포머: 김이중, 송지희, 하영미, 허호.
모두미술공간 제작지원.

라움콘은 문화예술 기획자 Q레이터와 시각예술가 송지희가 함께하는 아티스트 듀오이다. 뇌출혈 이후 장애를 경험하며 변화한 신체와 감각을 바탕으로 삶과 예술, 일상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한다. ‘라움콘’은 Q레이터가 베르니케 실어증을 겪는 동안 ‘양치질’을 말하려다 대신 사용하게 된, 착어이자 비언어에서 비롯되었다.

* 베르니케 실어증은 좌반구 측두엽 및 후두엽 근처의 베르니케 영역 손상으로 발생하는 감각성 실어증의 한 유형이다.

〈함께 조각〉은 장애와 돌봄의 관계를 사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서로 다른 조건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돕는 방식이 아니라, 오류와 실패를 공유하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라움콘은 이러한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기대는 상호의존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관계의 취약함에 주목합니다.

한쪽 팔만 움직일 수 있고, 얼굴 부분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착용할 수 있는 조각...이 조각은 혼자로는 온전히 기능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이 함께 연루되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조건, 호흡, 속도, 균형을 신경 써야만 합니다. 조각을 함께 입는 과정은 서로의 취약성이 가시화되는 순간이지만, 상대와 보폭을 맞추고 균형을 찾는 의지와 배려라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관람객은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사람과 함께 조각을 착용해 볼 수 있습니다. 조각을 입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교환되고 재구성되는 장애와 돌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3 우리가 쌓아온 이야기

2022-2026, 혼합매체, 가변 크기.

모두미술공간 제작지원.

기획: 김인규

기획보조: 조혜림

참여작가: 구민기, 김진우, 나영주, 박상범, 박천후,
백인도, 박초롱, 신기창, 안현순, 안동진,
양성원, 우현균, 유정연, 정지환, 최선아,
최종섭, 한수이, 함은애, 함은지, 홍진명

협력: 서천군,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서천문화관광재단.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의 작가들은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예술교육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미리 짜인 커리큘럼을 따르는 예술교육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욕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술이란 정해진 경로를 따르는 과정이 아니기에, 예술쉼터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들은 무엇보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표현과 내면의 욕망을 최우선에 두고 작업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활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기록하고, 특히 창작을 향한 순수한 열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설치 작업은 15년 동안 예술쉼터를 함께 일구어 온 참여자들의 궤적을 응축한 공동의 기록입니다. 관객은 통로 형태의 구조물 안을 거닐며 그들이 지나온 시간을 마주합니다. 위쪽으로 켜켜이 쌓아 올린 작업은 오랜 세월 함께 겪어온 인내와 노력의 흔적을 드러내고, 함께 만드는 즐거움과 관계의 소중함을 전해줍니다.

2011년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천지회에서 시작된 예술 공동체이다. 지역의 문화예술창작공간과 복지기관을 거점으로 이동하며 15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22명의 발달장애인 작가와 10명의 비장애인 회원이 함께 작업하고 있다. 복지 서비스의 이용자를 넘어 일상 속의 자발적인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예술적 삶의 일상화'를 실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

4-1 진우와 함께하는 기차여행_롤링페이퍼기

2024-2025, 혼합매체, 44 × 60 × 16 cm.

4-2 진우의 여행노트

2019-2026, 아카이브 노트, 18.2 × 25.7 cm.

4-3 진우와 함께하는 기차여행

2026, 싱글채널 비디오, 7분 23초.

영상 프로덕션: 소농지. 모두미술공간 제작지원.

진우는 종종 혼자 기차 여행을 합니다. 눈이 살짝 내린 서천의 아침에서 출발하는 이 작품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의 하루를 담아냅니다. 충남 서천의 집에서 출발해 아산역과 익산역을 거쳐 다시 서천으로 돌아오는 하루가 꼬박 걸리는 긴 이동 속에서, 그는 키오스크에서 승차권을 구매하고, 점심으로 국밥을 먹고, 지연된 열차를 기다립니다. KTX와 새마을호, 서해금빛열차 등 여러 열차를 타고 내리는 동안, 그는 혼잣말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여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상의 순간들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진우의 표정을 관찰하고 그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여행 자체를 좋아하는 순수한 태도와 열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우의 여행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결말보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깊은 몰입의 순간에 집중합니다.

진우에게 여행은 특별한 도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존재의 방식입니다. 이 작업은 장애인의 자립을 개인의 성취로만 바라보는 익숙한 시선을 벗어나, 한 사람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서의 연립(聯立)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는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1997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기차를 무척 좋아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혼자 기차 여행을 시작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2011년부터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5-1 우리 몸 크로키 - 공간 그림 퍼포먼스

2026, 캔버스 천에 아크릴, 가변 크기.

5-2 우리 몸 크로키 - 공간 그림 퍼포먼스

2026, 싱글채널 비디오, 8분 39초.

영상 프로덕션: 소농지. 모두미술공간 제작지원.

총괄기획: 문승현

안무가: 노경애

안무보조: 김명신, 김한비

참여작가: 곽현진, 김경아, 김정옥, 문은주, 서주현,

유혜진, 이순화, 이운정, 임현주

작가보조: 손혜연, 오란석, 임영숙.

〈공간 그림 퍼포먼스〉는 선사랑드로잉회가 2025년에 진행한 장애 예술교육 프로그램 〈우리 몸 크로키 수업〉의 마지막 단원을 퍼포먼스 영상과 설치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체 크로키에서 착안한 수업은 타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스스로 모델이 되는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 몸 크로키 수업〉은 공동체 작업을 실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 위로 서로 다른 몸이 내려와 정해지지 않은 색과 선으로 공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제2의 신체인 휠체어를 벗고 공동체의 장이자 연결의 장인 흰 캔버스 위로 몸을 내릴 때, 몸은 자유로워집니다. 이 몸짓들은 하나로 어우러져 커다란 무대 위의 공연이 됩니다. 팔은 파도를 그리듯 너울거리며 종이를 스치고, 발가락의 미세한 흔들림은 점과 선으로 축적됩니다. 긴장한 몸은 움직임을 거듭하며 점차 부드러워지고, 참여자들은 캔버스 천 위에 스스로를 마찰하며 자신의 몸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공간 그림 퍼포먼스〉는 몸의 자유를 넘어 생각과 정신의 자유로 확장되며, 몸의 느슨한 연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경계 없는 공동체적 사유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2000년 6월, 작은 야외 스케치 모임에서 시작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예술 공동체이다. 장애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형화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난 신체의 형태와 움직임을 탐구해 왔다. 장애인의 기초 미술 교육을 통해 장애 예술의 저변을 확장하고자 정기적인 드로잉 워크숍을 운영한다.

6 등지의 풍경

2026, 상자, 실, 종이, 씨앗, 차망, 철사, 밀랍점토, 스펀지, 주워 온 자연물, 스피커, 가변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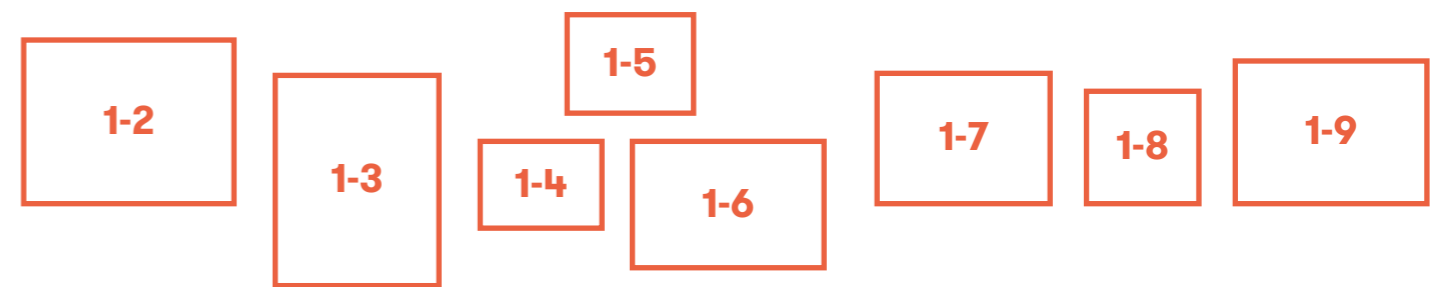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내 마음, 태도, 말, 몸과 생각 속에서 피어나는 여러 관계들을 떠올려 봅시다. <등지의 풍경>은 참여형 워크숍으로,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나고 대화하며 형성되는 관계의 성질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자 속의 물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사물들이지만, 워크숍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낯선 존재로 놓여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쉽게 다룰 수 없는 물건 앞, 무엇을 해야 할지 잠시 멈칫하게 만드는 혼란 속에서 우연한 접촉이 시작됩니다.

등지가 준비한 상자에는 실, 천, 종이, 씨앗, 밀랍 덩어리처럼 흩뜨리고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사물은 개별로 완결된 의미를 갖기보다 다른 것과 마주하고 부딪히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재료입니다. 관객은 하나의 상자를 골라 터를 잡고, 재료를 꺼내 만져보거나 이어 붙이고, 두드리고 비비면서 연주해 볼 수 있습니다. 낯선 것들을 만지고, 보듬고, 미세한 소곤거림에 귀 기울이면서, 참여자들은 무언가를 돌보고 신경 쓰는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마주합니다.

전시장 곳곳에 놓여 있는 작은 조각들은 이미 누군가 거쳐 간 워크숍의 결과물이면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등지의 일부입니다. 상자를 열어 당신의 작은 풍경을 이곳에 더해 보세요.

2024년 결성된 등지(김보라, 송하정, 오다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다. 포용적 예술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 등의 매체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관계를 맺고 연결되는 감각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 1-1 **Joyful Forest(Original Song)**
2024, marker, name pen on watercolor paper, 59 × 92 cm.
- 1-2 **J.S. Bach Cello Suite No.6
in D Major BWV 1012 Prelude**
2025, marker, name pen on watercolor paper, 92 × 72 cm.
- 1-3 **J.S. Bach Cello Suite No.6
in D Major BWV 1012 Courante**
2025, marker, name pen on watercolor paper, 72 × 92 cm.
- 1-4 **Mozart Divertimento in F Major,
K.138:II. Andante, III. Presto**
2022, marker, name pen on drawing paper, 39 × 54 cm.
- 1-5 **P.Tchaikovsky Pezzo
Capriccioso Op.62**
2022, marker, name pen, oil-based marker
on drawing paper, 44 × 56 cm.



- 1-6 **Goltermann Cello Concerto
No.1 in A minor**
2024, marker, name pen on watercolor paper, 56 × 84 cm.
- 1-7 **Haydn Symphony No.45 in F-sharp
minor “Farewell”: I. Allegro assai**
2025, marker on watercolor paper, 57.5 × 76 cm.
- 1-8 **Haydn Symphony No.45 in F-sharp
minor “Farewell”: II. Adagio**
2025, marker on hanji, 50 × 50 cm.
- 1-9 **Haydn Symphony No.45 in F-sharp
minor “Farewell”: III. Menuet**
2025, marker, name pen on hanji, 63 × 82 cm.

Lee Jeonghyeon is a cellist with chromesthesia, perceiving sound as color and expressing music through images. Since childhood, she has created *pictorial scores*, drawing melodies and scales with the colored dots that arise in her mind. Through this practice, she has developed a distinctive visual language that corresponds to the twelve notes of an octave with specific colors. Her *pictorial scores* later became a motif for the film *No Other Choice* and were used as props in the movie.

1-10 Haydn Symphony No.45 in F-sharp minor “Farewell”: IV. Finale

2026, marker on watercolor paper, 38.5 × 57.5 cm.

1-11 Shostakovich Cello Sonata D minor, 2nd mov.

2023, marker, name pen on watercolor paper, 51 × 69 cm.

1-12 Mozart Piano Concerto No.21 in C Major, K.467

2024, marker, name pen on watercolor paper, 58 × 91 cm.

1-13 C.Franck Cello Sonata in A Major, 2nd m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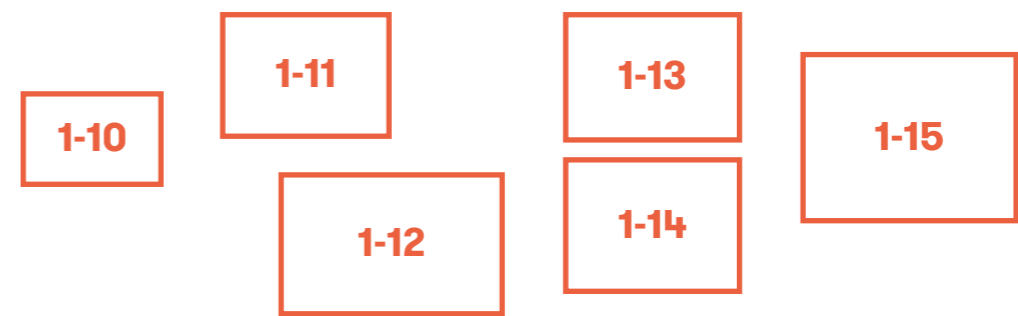
2023, marker, name pen, oil-based marker on watercolor paper, 52.5 × 72 cm.

1-14 C.Franck Cello Sonata in A Major, 4th mov.

2023, marker, name pen on watercolor paper, 55 × 72 cm.

1-15 Song of the Little Camellia

2023, marker, name pen on watercolor paper, 72 × 92 cm.



Lee Jeonghyeon’s father and mother have often spent quiet time with her in the forests since she was young. These experiences in nature, away from the overstimulating city, shaped her sensibility. As a result, the pure delight and calm of these childhood memories are deeply present in her self-composed song, *Joyful Forest*.

Music has been her unique form of self-expression since childhood. Through listening to sounds and responding to rhythm and harmony, She experienced a state in which sight and hearing naturally connected. This sensory shift later became the foundation for her work on *pictorial scores*.

The colorful dots on white paper may appear randomly scattered, but within them lies the order of an octave and a twelve-note scale. The colors and arrangement of the dots sing in their own way within the artist’s world, which crosses the boundaries between sight and hearing. The *pictorial scores* become the artist’s unique code and autonomous language, revealing her own way of relating to the world.

2-1 *Interdependent Sculpture*

2026, thread on cotton, variable installation.
Supported by Modu Art Space.

2-2 *Interdependent Sculpture*

2026, archival pigment print, 118.9 × 84.1 cm, 3 parts.
Supported by Modu Art Space.

2-3 *Interdependent Sculpture*

2026, single-channel video, 14 min 3 sec.
Performer : Kim ijjoong, Song jeehee,
Ha youngmi, Hur ho.
Supported by Modu Art Space.

laumkon is an artist duo consisting of cultural art planner Qrator and visual artist Jee Song. Through the physical and sensory changes experienced after a cerebral hemorrhage, they reinterpret life and explore the intersection of art and everyday experience. The name *laumkon* originated from a paraphasia and nonverbal expression used by Qrator in place of the word toothbrushing while suffering from *Wernicke's aphasia*.

* *Wernicke's aphasia* is a type of sensory aphasia caused by damage to the Wernicke area, located near the temporal and occipital lobes of the left hemisphere of the brain.

Interdependent Sculpture begins with the question of how we can reflect on both disability and care. Living together with different conditions is not a one-sided act of helping someone, but closer to a shared experience of error and failure. Based on these everyday experiences, *laumkon* focuses on the ways relationships become vulnerable within processes of interdependence, in which we lean on one another.

Sculptural pieces that allow movement with only one arm, obscure the wearer's vision by covering the face, and require the assistance of another person to be worn... these clothes cannot be fully worn alone. Two or more people must inhabit them together to move. During dressing, each person must pay attention to the other's physical condition, breathing, pace, and balance. The act of wearing the sculpture together is a moment in which each other's vulnerabilities become visible, while also revealing the movements of will and care involved in matching one's pace with another and finding balance.

The audience can try on the garments together with one or more visitors. In the process of moving their bodies to put them on, they come to a renewed understanding of care as something continuously exchanged and reshaped within relationships.

3 **The story we built**

2022–2026,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
Supported by Modu Art Space.

Project Lead: Kim Ingyu

Project Assistant: hye reem-Cho

Participating Artists: Gu Mingi, Kim Jinoo,
Na Yeongju, Park Sangbeom,
Park Cheonhu, Baek Indo,
Chorong Park, Shin Gichang,
An Hyeonsun, An Dongjin,
Yang Seongwon,
Woo Hyeongun,
Yu Jeongyeon, Jeong Jihwan,
Choi Seona, Choi Jongseop,
Han Sui, Eun Ae Ham,
Eun Ji Ham, Hong Jinmyeong

In collaborated with Seocheon-gun, Seocheon-Gun
Rehabilitation Center, Seocheon Culture Tourism
Foundation.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has carried out art education activities without relying on a fixed or formulaic program. This approach stems from the belief that art education based on a pre-arranged curriculum is often disconnected from the real needs of the participants. Because art does not follow a predetermined path, the people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in the program are encouraged to prioritize their own free expression and inner motivations above all else. In this process, the role of the teacher is not to instruct, but to closely observe and document the participants' activities, and above all to listen carefully to their genuine desire to create.

This installation is a collective record that condenses the trajectories of the many participants who have worked together to build the art club over the past fifteen years. Visitors enter the passage-like structure and move through the space, encountering the time the group has shared and accumulated. The work, layered and stacked upward, reveals the traces of patience and effort they have sustained together over the years, conveying both the joy of creating something collectively and the preciousness of the relationships that have formed through that process.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was founded in 2011 by the Seocheon Branch of the *Chungnam Paren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For the past fifteen years, it has remained active in local cultural and creative spaces and welfare facilities. This artistic community currently includes twenty-two artists who experienc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en non-disabled members who work together. Their activities aim to make artistic practice part of everyday life and to establish their identities as autonomous artists, moving beyond the role of simply being users of welfare services.

4-1 **Train travel with Jinoo**
_Rolling Paper Machine
2024-2025, mixed media, 44 × 60 × 16 cm.

4-2 **Jinoo's Travel Note**
2019-2026, archival notebooks, 18.2 × 25.7 cm.

4-3 **Train travel with Jinoo**
2026, single-channel video, 7 min 23 sec.
Film Production: sonongji.
Supported by Modu Art Space.

Kim Jinoo often travels alone by train. Beginning with a light morning snow in Seocheon, the footage follows his journey and records the passage of a single day. Over the course of this long trip, he departs from his home in Seocheon, travels through Asan and Iksan stations, and eventually returns to home. Along the way, he buys a ticket at a kiosk, eats rice soup for lunch, and waits for a delayed train. Riding many trains, including the KTX, *Saemaeul Train*, and *West Sea Golden Train*, he sometimes talks to himself, sings songs he likes, and calls his father to tell him what is happening along the way.

These scenes depict everyday moments that unfold naturally during the journey. We observe Kim Jinoo's facial expressions, listen to what he says, and encounter his sincere attitude and passion for fully enjoying the journey itself. His journey focuses more on the moments of enjoyment and the deep immersion he experiences while traveling, rather than on the conclusion of reaching a destination.

For Kim Jinoo, travel is not a special challenge but a way of being. This work moves beyond the familiar perspective of viewing a disabled person's independence as merely a personal achievement; instead, it presents travel as a way for individuals to connect with the world. Through his presence, we are prompted to reflect on what it means to live a self-chosen life fully enjoyed.

Kim Jinoo was born in 1997 in Seocheon, Chungcheongnam-do. He has an intellectual and neurological disability. Since childhood, he has loved trains, and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he began traveling by train independently. He also enjoys drawing and socializing with others, so he joined an art club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2011, where he continues to be active today.

**5-1 Body Croquis:
A Spatial Drawing Performance**
2026, acrylic on canvas, variable installation.

**5-2 Body Croquis:
A Spatial Drawing Performance**
2026, single-channel video, 8 min 39 sec.

Film Production: sonongji.
Supported by Modu Art Space.

Project Lead: Moon Seunghyun
Choreographer: Ro Kyung Ae
Assistant Choreographers: Kim Myeung Shin,
Kim Hanbee

Participating Artists: Kwack Hyun jin,
Kim Kyung Ah, Kim Jungok ,
Moun Eunjoo, Seo Ju Hyun,
Yoo Hye jin, Lee Soonhwa, Lee
Yoonjung, Lim Hyeonju

Artist Assistants: Son hye youn, Oh Rhanseok,
Lim Youngsook.

A Spatial Drawing Performance is a recomposition of the final session of the disability art education program *Body Croquis Class*, conducted by *Sunsarang Drawing Group* in 2025. The class, which began with body croquis exercises, gradually developed through observing and understanding others' movements, eventually reaching a stage where participants became models themselves.

In the final section, *Body Croquis Class* experiments with collective practice. Onto a blank canvas, different bodies come together, beginning to fill the space with undefined colors and lines. As participants set aside their wheelchairs —*their second bodies*— and lower themselves onto the white canvas, a site of community and connection, the body becomes free. Arms sway like waves, brushing against the paper, and the subtle tremors of toes accumulate into dots and lines. Through repeated movements, tense bodies gradually soften, and participants come to understand their bodies anew by pressing and moving them on the canvas.

Spatial Drawing Performance goes beyond the freedom of the body, showing how freedom of thought and of the mind can extend into a *loose connection of bodies*, making boundaryless, collective ways of thinking possible.

Sunsarang Drawing Group is an art community of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founded in June 2000 as a small outdoor sketching group. Grounded in disability identity, the group has explored the forms and movements of the body beyond standardized norms of beauty. Through regular drawing workshops, they have sought to broaden the horizons of inclusive art while providing foundational art education for its participants.

6 The Dungji Scenery

2026, boxes, threads, paper, seeds, tea strainer, wire, beeswax clay, sponge, found natural objects, speakers, variable installation.

Founded in 2024, *Dungji* (Kim bora, Song Hajeong, Oh Dasom) has presented participatory programs for social minorities, including children, th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foreigners. Drawing on their experience in inclusive art practices, the group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sensible community* in which different subjects connect and relate through media such as installation, sound, and performance.

Dungji

Let us reflect on the various relationships that blossom within our different bodies and thoughts: the weather today, our hearts, attitudes, and words. *The Dungji Scenery* is a participatory workshop that metaphorically illustrates the relationships that form when different beings meet and converse. The items placed in the box are everyday objects commonly found around us, but within the particular setting of the workshop, they appear as unfamiliar beings. In this state, both familiar yet not easily handled, and in a moment of hesitation about what to do, unexpected encounters begin.

The boxes prepared by *Dungji* contain a variety of objects that can be scattered and connected, such as thread, cloth, paper, seeds, and lumps of beeswax. Visitors may select a box, take out the materials, touch them, attach them, and even play them like instruments by tapping or rubbing them. Each object does not hold a complete meaning on its own, but gains meaning as it encounters and collides with others. By touching and tending unfamiliar objects, and listening closely to their subtle murmurs, participants naturally find themselves caring for something and, in the process, encountering themselves.

The small pieces scattered throughout the exhibition space are the results of workshops that others have already experienced, and at the same time, they form part of a nest that continues to grow. Open the boxes and add your own small landscape to this space.

«관계의 기술: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

2026.4.16 — 5.23

모두미술공간

참여작가

김진우, 등지, 라움콘,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실터, 선사랑드로잉회, 이정현

주최 및 주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모두미술공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력

서천군,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서천문화관광재단

기획

박시내

코디네이터

정지윤

홍보, 프로그램

정세영

시설, 접근성

김도영

그래픽디자인

오디너리피플

공간디자인

표표건축사사무소

프로덕션

마음스튜디오

미디어

만리아트메이커스

접근성 콘텐츠 제작

조금다른 주식회사

모두미술공간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남대문로5가 541)

서울스퀘어 별관 5층. 04637

02-760-9797

www.moduartspace.or.kr

instagram @moduartspace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2026.4.16 — 5.23

Modu Art Space

Participants

Kim Jinoo, Dungji, laumkon,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Sunsarang
Drawing Group, Lee Jeonghyeon

Organized by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al Center,
Modu Art Space

Sponsor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collaboration with

Seocheon-gun,
Seocheon-gun Rehabilitation Center,
Seocheon Culture Tourism Foundation

Curated by

Sinae Park

Exhibition Coordinator

Jiyun Jeong

PR and Program

Jeong Seyeong

Facility and Accessibility

Kim Doyoung

Graphic Design

Ordinary People

Space Design

PyoPyoArchitects

Production

MAUM STUDIO

Media

Manriart Makers

Accessibility Content

A Little Different

Modu Art Space

5th Floor, Annex Building, Seoul

Square, 416 Hangang-daero,

Jung-gu, Seoul. 04637

02-760-9797

www.moduartspace.or.kr